핀테크 기업과 협업… 채널 허물어 금융 생태계 구축

금융, 飛上 2020 전략

〈8〉 DGB금융

작년 3분기 누적 순이익 2721억원
금융복합점포 디그니티 개설 '차별화'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디지털 경쟁력↑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올해 DGB금융그룹의 목표는 '새로운 DGB 탄생'을 위한 수익기반 창출이다. 금융산업 판도가 바뀌는 시기, 지금까지의 경영체질과 수익구조를 과감히 혁신해 금융 생태계를 이끌겠다는 포석이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금융 생태계 변화로 많은 금융회사와 IT, 핀테크 기업들이 파트너이자 경쟁자가 되고 있다"며 "신뢰받는 금융그룹으로 역할을 다하되, 튼튼한 기본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뭉쳐야 산다"…협업으로 체질개선

DGB금융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72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3% 감소했다. DGB 연간 당기순이익은 36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자이익이 감소하고, 부실채권 매각으로 비이자 부문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DGB금융은 계열사와 협업해 체질개선에 나선다. 특히 DGB금융은 하이투자증권의 투자자문 노하우와 대구은행의 지역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익원을 다각화한다.

현재 대구은행-하이투자증권 점포가 결합한 금융 복합점포 디그니티(DIGNITY)를 개설해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그니티는 본점센터, 월배센터, 강남센터에 이어 제2본점센터 등 4개 점포를 개점했다.

김 회장은 "각 계열사의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앞으로 은행 고객기반이 우수하고, 금융 투자 상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복합점포를 개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GB S.B/DGB라오리싱 순익현황〉 /단위:억원

	기준년도	총자산	당기순이익
DGB캄보디아특수은행 (DGB S.B)	2018년말	1575	74
	2019년 3분기	2148	80
DGB라오리싱	2018년말	483	5
	2019년 3분기	570	7

/자료=DGB금융그룹

◆'디지털 경쟁력' 높여 영업기반 확대

'디지털 글로벌 뱅킹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도 강화한다.

김 회장은 "본격적인 오픈뱅킹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마이 데이터 산업 활성화도 목전에 와 있다"며 "생존을 위해선 디지털을 활용해 영업 기반을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디지털 경쟁력을 키워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시·공간 제약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IM뱅크·IM샵 생활 금융플랫폼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IM뱅크·IM샵 생활 금융플랫폼은 과다한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를 최소화하고, 세 채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핀테크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지원센터 'DGB피움랩'도 마련해 핀테크 기업들과의 혁신서비스 창출도 꾀한다. DGB금융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436억원을 투자한다. 또 5년간 피움랩에 입주할 20개 기업을 대상으로는 20억원을 직접 투자할 계획이다.

◆현지화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국내 금융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진출사업도 확대한다.

김 회장은 "지역시장이 좁다면, 더 넓은 국내시장으로, 국내시장이 좁다면 더 넓은 글로벌 시장으로 새로운 시장을 찾아 떠나야 한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올 상반기 베트남 중앙은행인 베트남국영은행(SBV)으로부터 예비인가를 승인 받아 호치민 지점을 개점한다.

현재 대구은행은 캄보디아에 특수은행(DGB S.B)을, 중국 상하이에는 지점을 보유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미얀마에 DGB 마이크로파이낸스(MFI)를 개점했다. DGB캐피탈은 라오스에 리스회사(DGB라오리싱)를 운영하고 있다.

캄보디아 특수은행은 지난해 3분기 80억원의 순익을 달성해 지난해 말(74억원)보다 6억원 증가했다. 총 자산 규모도 1575억원에서 2148억원으로 4배가량 커졌다. DGB캐피탈의 라오스 리스회사의 순익도 7억원으로 지난해(5억원)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우리가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필두로 동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그 순간 우리는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며 "대내외적으로 경영 성과를 검증 받은 현지 로컬 은행과의 업무제휴로 선도적인 시너지 강화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지난 15일 서울 중구 NH농협금융 본사에서 열린 'NH농협금융-아문디사 주주 간 운영위원회'에서 김형신 NH농협금융 사업전략부문장(왼쪽에서 다섯번째), 배영훈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왼쪽 세번째), 베르나르 드윗(Bernard DEWIT) 아문디사 부사장(왼쪽 여섯번째) 등 양사 관계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

NH농협금융, 아문디와 해외투자 강화

NH-아문디자산 해외투자규모 5.1조

NH농협금융은 프랑스 아문디사와 협력해 NH-아문디자산운용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부문을 강화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문디사는 NH-아문디자산운용의 2대 주주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해외투자부문 조직을 개편하고, 아문디사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비즈니스를 통해 운용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먼저 NH-아문디자산운용은 해외투자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영입한다. 아문디사는 해외투자 전문 인력에게 집중연수 프로그램 제공하고 본사 운용전략회의에 초청하는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해외투자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조1000억원이다. 지난 2017년 해외투자부문이 출범한 후 수탁고가 50% 이상 성장했다. 앞으로 아문디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투자부문을 더욱 강화해 국내 탑5 선도 운용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NH농협금융과 아문디사는 지난 15일 주주 간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해외투자부문 강화에 대해 논의한 후 세부 추진방향을 합의했다. 주주 간 운영위원회는 양사의 담당임원이 NH-아문디자산운용의 성장전략을 점검하고, 상호 협조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한다.

김형신 NH농협금융 사업전략부문장은 이번 협력에 대해 "양사의 돈독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아문디사의 전문 운용역량이 NH-아문디자산운용에 전수되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NH-아문디자산운용은 해외투자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안정적이고 든든한 운용사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고객중심 위해 KPI제도 21년만에 전면개편

〈직원성과지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고객은 우리의 존립 근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올해 경영목표를 '신뢰·혁신·효율'로 잡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손 행장 및 임직원 9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임직원들의 진심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자는 주제로 실시됐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임직원들에게 2020년 경영목표인 신뢰·혁신·효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우리은행

손 행장은 "고객은 우리의 존립 근간으로, 올해는 고객 신뢰의 회복을 넘어 더욱 탄탄하고 두텁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철저히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1년 만에 전면 개편된 고객중심의 KPI 제도를 통해 영업문화의 대 혁신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며, "우리은행이 금융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2020년을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손 행장은 "올해 경영목표인 '신뢰·혁신·효율'이 좋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하려는 적극적인 '실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실천하는 2020년을 의미하는 'Act 2020!'의 결연한 각오를 전 임직원에게 당부하며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왼쪽에서 다섯번째부터)박형주 아주대학교 총장, 허인 KB국민은행장, 한상견 KB국민은행 기관고객그룹 전무, 임재성 아주대학교 부총장. /국민은행

KB국민銀 'KB아주대학교점' 개설

KB국민은행은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KB아주대학교(점)' 영업점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열린 개점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과 박형주 아주대학교 총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아주대학교와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으며, 본격적인 주거래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양 기관 모두 국민에게 더욱 사랑 받는 기관이 되도록 상생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신한카드

미래 10년위한 미래상 제시

신한카드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AW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업적평가대회를 개최, 신한카드가 향후 지향해 나갈 '일류 신한카드의 미래상'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고객이 인정하는 일류 멤버십 기업'과 '흐름을 주도하는 일류 디지털금융 기업',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일류문화 기업'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신한웨이(WAY)상'과 더불어 디지털 전략 추진 등 우수 성과를 올린 조직과 개인에 대한 시상이 함께 이뤄졌다.

/홍민영 기자